

##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速記錄)

- 주 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 시 : 2023. 11. 17.(금) 10:00~12:00
- 장 소 : 문화본부 4층 대회의실

### [심의안건]

- 표석 명칭 및 문안 수정, 표석 이설 : 1건  
  - <복주우물>
- 표석 문안 재심의 11건
  - <김상옥 의사 순국지>
  -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관 터>
  - <조선형평사 총본부 터>
  - <조선민족대동단 만세시위지-안국동 광장>
  - <조선물산장려회 회관 터>
  - <대한독립애국단 활동 거점-신현구 집터>
  - <조선민족대동단 단원 이신애 거주지>
  -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황애시덕 거주지>
  - <3·1운동 이전 학생대표 모임 장소>
  - <조선청년회연합회 회관 터>
  - <조선여성동우회 회관 터>

(개회)

### ○ ○○○ 과장

위원님들 다 오셨으니까 제4차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 건은 표석 명칭 및 문안 수정하는 복주우물 건이 1건이 있고 문안에 대한 재심의 건이 11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보셨던 안건이라 간략하게 하면서 핵심 포인트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표석 명칭 및 문안 수정

#### <복주우물>

그러면 첫 번째 안건 복주우물 건입니다.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 팀장

지난번 회의 때 서대문구에 있는 복주우물이라고 하는 표석의 명칭과 문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부의를 했어요. 지난 11월 2일에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좀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상으로는 명칭과 문안을 수정하고 대신 현재 표석 위치가 원래 복주우물이라고 하는 위치도 아니고 또 이 복주우물을 연결시켜서 약수터로 쓰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100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표석 설치 위치도 변경해서 아예 약수터 옆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역사를 표석에 쓰기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서대문구청과 협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협의를 해봤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표석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 위원회의 결정대로 시에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해드립니다. 그리고 표석 명칭은 지금 복주우물에서 '복주천'이나 혹은 '복수천'으로 수정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 명칭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복주우물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고 그다음

에 복주우물이라고 하는 게 종로 화동 쪽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복수천’ 혹은 ‘복주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복주산동’이라는 지명은 원래 없었던 지명이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1914년 사료에 이미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표석 자료조사 용역에서 쓴 원고가 있는데 복주천의 명칭을 붙여서 저희가 수정해본 겁니다.

오늘 안건은 이 문안에 대해서 새로 작성을 할 건지 아니면 이 문안을 중심으로 해서 표석 문안을 할 건지하고 그다음에 표석 위치를 이동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장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복주우물 표석이 있고요. 용벽이 높게 솟아있고 거기 입구 쪽에 이 복주우물이라고 하는 표석이 우측으로 안쪽 길을 쭉 따라오면 윽긴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주우물 표석이 입구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표석이 있어서 뭔가 우물이든 약수터가 있다는 표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 의견으로는 ‘이 표석을 이 약수터 부근으로 옮겨서 문안 수정해서 설치했다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장

그러니까 위치 변경은 원래 있던 이화여자대학교 법인 행정동 안에는 못하고 그 안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겠죠?

○ ○○○ 팀장

네.

○ 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4페이지 문안의 수정안이 있는데요. 잘 한 것 같기는 한데요.

○ 위원 1

설치 위치는 변경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엉뚱한 데 있으니까요.

○ 위원 2

○○○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위원 3

여기에 관련해서 사료조사나 검토는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기본 설명은 들으신 내용과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명칭은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물’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 우물이 아니라 개념상으로만 우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는 쪽인데요. 민원상으로는 그런 식의 이름은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고 사료가 있으니까 복주천이건 복수천이건 이런 식으로 변형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검토된 것은 중간에 행정 명칭상으로 복주산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1914년도인데 하여튼 지금 그 동네가 복아현동이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아현복리’ 이런 식으로 1914년도에 고양군에 편입될 때 정리된 자료에도 복주산동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성부 밑에 면단위로 있을 때 1911년도의 자료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복주산동이 나오고 제가 추가로 생각이 나서 확인해보니까 경성부사에 갑오개혁 당시 서울과 관련된 방 명칭이 다 나와 있는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확인했더니 복주산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주산동이라고 붙이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는 대개 그냥 구전으로만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 선생님이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서 일단 복주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이고 다만 하나, 복주우물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화동에도 복주우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표석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는 지금 ‘복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명에는 복주우물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거기에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니까 복주정 또는 복주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원래 그 샘터 위치가 이화여대 관련해서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문구 속에서 녹여 넣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자리는 이 자리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몇 백 미터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끝 구절에 추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파배다리 터’가 그런 식의 용례로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원래 자리는 서울역 구내인데 그게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재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구내에 표석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더라도 그곳에서는 일반인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표석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설치자리에 두면서 여기서부터 몇 백 미터라고 표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후보 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드린 의견은 차체에 이것 자체가 위치도 안 맞고 하니까 서울시 단위의 표석 자체는 폐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새로 하더라도 들어가는 문구 내용이나 설명 구조가 정말 아주 간략하게밖에 안 되고 원래 위치도 안 맞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 전적으로 일임을 해서 오히려 샘터 앞에 내용을 풍부하게 안내판 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취지를 보면 표석이라는 것은 실물 자체가 사라진 것을 기억하는 구조로써 만드는 건데 이것은 실물이 변형은 됐지만 남아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태여 꼭 표석을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후보로서 검토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 쪽에서 그쪽 관리를 구청에서 책임지니까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거나 표석과 관련된 내용도 풍부하게 받아들여서, 문화재안내판도 설명이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문헌자료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기존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치를 지금 자리 정도로 옮기면서 문구를 조금 다듬어주는 방식 하나에다가 대신 그 안에 원래 자리가 몇 미터 정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1차 후보. 그다음에 차체에 동의를 하신다면 아예 폐기가 가능하다면 서대문구청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아예 폐지하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구청에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 그냥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지난번에 보고할 때 현지 주민들도 이 표석이 필요 없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 팀장

네. ‘부정확한 정보를 줄 것이라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한 다.’ 그분은 대표 민원인이십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꾸 우물에

집착하셔서 우물이 아닌데 우물로 쓴 적이 없고 약수터로 썼는데 우물로 된 표지판이 있으니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위원 3

우물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은 차라리 안내판처럼 문구가 길면 그 구절을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무슨 우물이라고 하는 게 수직계 우물이 아니라 바위틈에 솟아나는 샘이라든지 이것을 다 총괄해서 쓰는 어법이라고 아예 그 구절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 팀장

구청에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저희가 이것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옮겨서 세울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표석이 원래 기능이 다 없어지고 아무런 흔적이 없을 때 표시를 하는 건데 지금은 옮겨졌는데 거기에 표석을 설치해놓고 사실 원 위치도 아닌 거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리가 모은 자료라든지 논의 결과를 다 구청에 넘겨주면서 다시 한 번 부탁해서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 ○○○ 과장

저희가 구청에 정식으로 권고 형식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도 바꾸고 명칭도 바꿔 놓고 이번에 설치를 하는데 향후 안내판 형식으로 구에서 하는 것을 정식으로 권고해놓고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위원 4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표석분과에서 기존에 설치된 표석을 없애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럴 때의 지침을 차체에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매번 논의할 게 아니라. 장소가 잘못되었다든지 할 때요.

○ ○○○ 팀장

그런 사례도 있고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리스트도 있고요. 재조사를 해서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것은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4

사례가 아니라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요.

○ 위원장

예.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 ○○○ 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설치에 대한 매뉴얼은 정돈되어 있는데 이후 변경이나 폐기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개 구청에 이관하는 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 ○○○ 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구청에 요청하고 담당부서 과장한테도 제가 말을 해놓겠습니다.

○ 위원장

두 번째 안건 설명해 주세요.

■ 표석 문안 재심의

○ ○○○ 과장

다음 안건입니다. 11건의 문안 목록이 있고 한 건, 한 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페이지 김상옥 의사 순국지입니다. 수정 후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

습니다. ○○○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 <김상옥 의사 순국지>

○ 위원 5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메모해놨다가 그 범위 안에서 줄이고 모호한 것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5번 조선헌산장려회 회관 터까지는 반영을 했고요. 6번은 그때 큰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큰 오류가 있지 않아서 유지했고요. 나머지 안건은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게 다시 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게 최종 결정문은 아니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 ○○○ 팀장

내용상 문제가 없으시면 문안은 다시 국어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표기법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볼 예정이니까요. 내용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수정 후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검토할까요?

○ ○○○ 과장

예. 하나씩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번 김상옥 의사 순국지부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알겠습니다. 1번 김상옥 의사 순국지는 수정된 문구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관 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관 터>

○ 위원 2

연구회 회관, 우리가 '회관'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회관이라고 해도 돼요?

○ 위원 5

일단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서요. 회관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는 한데요.

○ 위원 3

회관이라고 많이 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YMCA 같은 경우도 회관이라고 씁니다.

○ 위원 2

YMCA이야 뭐 명확한 실체가 있는데.

○ 위원 3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기사 등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 위원 2

알겠습니다. 연구회라고 해서 그냥 회관이라고 한 건지 해서요. 회관이면 또 모양상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 위원 3

앞의 복주우물에서의 '우물'과 똑같은 개념인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개념이 조금씩 바뀝니다.

○ ○○○ 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그때 한 번 논의되었던 게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단체라는 부분을 한 번 체크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나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5

그런데 이것을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것을 빼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 그것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세우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 과장

예. 그럼 2번도 이 문구대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 1

좋습니다.

○ 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통 요새 학생들한테 '과학연구회'라고 하면 화학, 물리, 생물 연구회라고 오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런 것을 사회과학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사회주의 계열 학생, 이 쪽을 요새로 말하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생단체 아니에요?

○ 위원 1

사회과학이 사실 마르크스 사회주의인데.

○ 위원장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과학연구회'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때 학생들이 모여서 과학, 생물 이런 것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1  
그러니까 앞에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회과학이 나오니까 독자가 ‘그 과학이 사회주의겠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요.
- 위원 5  
안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 당시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설명을 또 하면서 오히려,
- 위원 2  
요새는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서 보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백과사전이나 모바일로 다 해결합니다. 그 설명이 나오니까요.
- 위원장  
일단 이 원안대로 가서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우선 그러면 이대로 문안을 놓고 또 다음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진행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조선형평사 총본부 터입니다.
- <조선형평사 총본부 터>
- 위원 2  
두 번째 줄에 ‘소위’가 ‘백정’만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백정부터 밑에 다 걸리는 겁니까? 백정에 작은따옴표를 붙입니다.
- 위원 5  
그것은 나중에 국어연구회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했을 때는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 위원 2  
일반적으로 소위 이르면 붙이잖아요.
- 위원 5  
안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 ○○○ 과장  
이것은 국어연구원에 보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5  
그래서 백정을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서요.
- 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 위원 1  
그런데 여기서 인권해방을 신분해방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 위원 5  
그렇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더 맞고요.
- 위원 1  
백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 위원 5  
백정 설명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 위원 4  
맨 밑에 1937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밑에 보니까 ‘일제의 압력으로 해체되는’ 이것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평사는 일제의 압력으로 해체되는 1937년까지 형평운동을 이끌었다.’ 이것을 포함시키면 더 명확하고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5

이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요. 한 가지 제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까지 거의 모든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렇게 해체가 되니까요.

○ 위원 4

그래도 이것은 개별적인 거니까요. ‘왜 1937년이지? 그 이후에는 뭐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드니까요. 해체된다는 얘기가 기록되면 좋겠어요.

○ 위원 5

예.

○ ○○○○ 과장

그럼 조선형평사 총본부 터는 ‘신분’으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일제 압력으로 해체되었다는 것을 넣는 부분 이렇게 하고 국어연구원에 보내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5

해체의 사유·경위가 포함된 용어를 넣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 ○○○○ 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1937년 5월 일제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고 하면 분명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 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형평사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조선민족대동단 만세시위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선민족대동단 만세시위지-안국동 광장>

○ 위원 2

‘국내외 독립운동가와 연계하여’가 아니라 주어가 ‘독립운동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국내외 독립운동가가 연계하여 조직한’ 또는 ‘국내외 독립운동가가 조직한 조선민족대동단 단원들은’ 그다음에 ‘국내에서 대규모 만세시위를’ 이것을 지우고,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닌 일반적인 서술인데 너무 내용이 중복돼서 늘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조선민족대동단 단원들은 11월 28일 안국동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게 더 매끄럽지 않아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연계하여 조직된 조선민족대동단 단원들은 11월 28일 안국동 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 위원 4

‘안국동 광장’표석 이름으로 나오고 하니까 ‘이곳에’ 이렇게 하는 게 낫죠. 표석 이름에 ‘안국동 광장’이 이미 나오니까요.

○ 위원 2

여기가 어디예요?

○ 위원 5

안국동 광장이 풍문여고 앞 삼거리인데, 이 위치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일본공보문화원 쪽의 안국역 사거리일 수도 있고 그 풍문여고 앞 쪽으로 공덕 쪽에 있는 오거리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아주 길지 않으니까 그 구간인데 그중에 어디가 더 합당하냐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보니까 풍문여고 앞쪽이 더 맞는 위치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학교들이 짝 흐르잖아요. 덕성, 풍문, 동덕 쪽 나가는 데니까 어쨌든 이때는 학생보다 기성인들이 많이 참여한 게 특징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그 당시 길목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안국역 사거리는 전통가옥 쪽에 더 가까운 북촌 라인이고 여기는 길 하나 둔 성격의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극기를 넣었던 이유는 이신애가 뒤의 안전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태극기를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이 언급되는 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 위원 3

그런데 학교 관계는 대개 보면 지금 학교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풍문이라든지 등등은 일제 후반기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위원 5

제가 말한 것은 위치는 풍문이고 원래 덕성, 동덕부터 그쪽이 쪽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묶어서 하나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다섯 개 정도의 학교가 이어지거든요.

○ 위원 3

그러니까 여기 파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게 여기처럼 1930년대 지도라든지 어쨌든 제일 빠른 게 그런 정도의 기능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 위원 5

예.

○ 위원 3

어쨌건 그 당대의 것은 아니네요. 10여년 이상은 차이가 나네요.

○ 위원 5

그래서 이게 딱 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3

저도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소가 중요한데요. 잘못 세웠다가는 안 세우느니만 못하잖아요. 장소가 꽤 떨어져 있어요.

○ ○○○○ 과장

그러면 이 장소는 ○○○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장소를 확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 5

같이 한 번 가보시죠. 지리적인 것을 확인할 자료보다 활동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 ○○○○ 과장

어느 위치가 되더라도 그래도 이게 명분상 맞다는 이 정도의 설명은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위원 3

현재 단서로는 헌병주재소 앞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기본 단서죠. 광장이라는 것은 좀 넓은 개념이니까요. 그냥 광장이라는 개념이면 주재소 앞이라든지 이것에 얼마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주변의 너른 개념 중에 중간 공간 정도의 개념이니까 어느 방향에 적당히 세워도 상관이 없어 보이고 만약에 사료상에 예를 들어 헌병주재소 앞이라든지 이렇게 굳이 언급되어 있으면 어쨌건 주재소 위치를 찾는 게 급선무이고 그런 개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장소 한 번 비정해보세요. 또 하나, 참고하실 게 지금 안국역 전철역에 들어가시면 지하 역사에 이것을 나타내는 부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과의 정합성도 따져보세요. 부조물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 위원 5

왜 그러냐면 안국동 광장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용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국동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곳은 지금 말씀드린 곳밖에 없거든요. 안국역사거리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협소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안국동 광장을 특정 짓기 위한 단서로서 경찰관 파출소를 참고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오기는 한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부기한 겁니다.

○ 위원장

광장이라는 말을 나중에 붙인 거죠?



○ 위원 5

사료상에 나옵니다.

○ 위원 3

안국동 광장이라는 게 그 중간에 안국전차종점도 안국동 광장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 ○○○ 팀장

일단 위치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안을 보시면 됩니다.

○ ○○○ 과장

말씀 주신 것을 수정해놓고 위치는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5번 조선물산장려회 회관 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 <조선물산장려회 회관 터>

○ 위원 2

맨 위에 '우리의 물산 장려를 자생으로 이루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물산 장려로 자생을 이루는 것 아닌가요? 둘 다 맞은 겁니다. 뉘앙스 차이인데요. 물산 장려를 우리의 힘으로, 생산을 우리가 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자생을 하자는 건지.

○ 위원 4

이 앞의 것을 제가 봤는데요. 1923년 1월 조직된 물산장려회 회관이 있던 곳이다. 조선물산장려회는 1940년까지 그다음 줄 '전개하였다'까지. 앞의 우리의 물산 장려를 자생으로 이루고자 했던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뒤에도 다시 설명이 나오잖아요. '1923년 1월 조직된 조선물산장려회 회관이 있던 곳이다. 조선물산장려회는 1940년까지' 그다음에 쪽 '전개하였다'까지.

○ ○○○ 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 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깔끔하겠네요.

○ ○○○ 과장

예. 다음은 11페이지 대한독립애국단 활동 거점 관련된 내용입니다.

□ <대한독립애국단 활동 거점-신현구 집터>

○ 위원 2

두 번째 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오는 부분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어나갔다'라고 해야 하나요, '이어갔다'라고 해야 하나요?

○ 위원장

'이어갔다'고 해도 되겠죠.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 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해놓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선민족대동단 단원 이신에 거주지입니다.

□ <조선민족대동단 단원 이신에 거주지>

○ 위원 2

민족대동단이 많더라고요.

○ 위원 5

그래서 무조건 다 설치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뚜렷하게 나

와 있어서 여기까지 정리는 해놨습니다. 아마 여성독립운동가 얘기가 나와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에는 대대적으로 해달라고 아마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했죠.

○ 위원장

문장 어떻습니까?

○ 위원 2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 ○○○ 과장

예. 그러면 7번은 수정 후의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4

그냥 '11월'이라고 하지 말고 '11월 28일'이라고 하죠. 11월 내내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요.

○ ○○○ 과장

네. 알겠습니다. '11월 28일'만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황애시덕 거주지입니다.

□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황애시덕 거주지>

○ 위원 5

'부인회를 이끌고'로 고치고 뒤에 '옥고를 치렀다.'를 다른 데에서 이렇게 쓴 것들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을 표석에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몇 년간 옥고를 치렀다. 한 번 치르기도 하고 두 번 치르기도 하고.

○ 위원 2

'부인회 총무 겸 편집인으로 연계활동을 벌이다가' 이게 더 부드럽지 않아

요?

○ 위원 5

연계활동을 벌이다가 옥고를 치렀다고 할지 아니면 연계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할지.

○ 위원장

그런데 옥고를 3년간 치렀다는 게 보증을 못한다는 거죠?

○ 위원 5

보증은 됩니다. 수용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될 것 같아요.

○ 위원 2

그러면 앞의 이신에는 형 안 받았어요?

○ 위원 5

받았습니다.

○ 위원 2

거기는 형을 받았다는 게 없잖아요. 개인을 어느 선까지 띄울지.

○ 위원장

이신에는 옥고를 치른 사실이 조사에 안 나와 있는데요.

○ 위원 2

이름을 다 이렇게 표기합니까? 세례명 비슷하게 서양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황애시덕 우리 식으로 불러서 합니까? 그것을 우리 말로 씁니까? 이게 사실 황애시덕을 한자로 쓰다 보면 애시덕인데 중국으로 읽으면 '에스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또 다시 우리말로 읽으면 애시덕이 되는데요.

○ 위원 5

그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 위원 2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 위원 5  
예.
- 위원 2  
알겠습니다.
- 위원 5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공자 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 1  
유공자 명부.
- 위원 4  
옥고를 두 번 치른 거죠?
- 위원 5  
예.
- 위원 4  
이게 1919년 여성독립운동 단체가 3·1운동하고 관련이 없나요?
- 위원 5  
3·1운동보다도 여성운동이 더,
- 위원 4  
1919년 여성독립운동 단체 결성에 힘썼다는 게 3·1운동하고 관련이 없나  
요?
- 위원 5

이 단체의 결성은 3·1운동 이후입니다.

- 위원 4  
그러니까 3·1운동이 계속…
- 위원 5  
관련이라고 하면 3·1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체는 없죠.
- 위원 4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3·1운동으로 투옥됐다가 풀려난 후’ 이렇게 옥  
고를 치르고 또다시 3년간 옥고를 치렀다는 문장이 이상해서 ‘3·1운동으  
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 황애시덕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3·1운  
동으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에 다시 또 옥고를 치렀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 5  
3·1운동만으로는 아닙니다. 3·1운동보다,
- 위원 4  
그러니까 3·1운동은 큰 민족운동이니까요.
- 위원 5  
3·1운동은 크지만 여성독립운동 단체인 애국단을 만드는 것은 특정하고  
구체화된 활동이니까요.
- 위원 2  
개인적으로 뒤에 ‘3년간 옥고를 치렀다.’는 말은 빼면 안 되나요?
- 위원 4  
옥고를 치렀다는 게 두 번 나와서요.
- ○○○ 팀장  
‘또다시’가 들어가서 강조하는 것으로. ‘또다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 위원 4

앞에는 투옥됐다가 금방 풀려난 것 같은데요. 투옥되었다가 옥고를 치르지 않고 풀려났다는 것 같아요. 옥고는 기본적으로 확정형 받고 징역형을 사는 거니까요. 앞의 것과 뒤의 것은 내용상 차이를 뒤야 하나가요.

○ 위원 3

황애시덕 표석 세우는 위치를 보니까 종로6가 ○○○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 매일신보 편집국장을 지낸 그 ○○○ 같은 느낌이에요. 전형적인 친일파 집인데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지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표석이라도 하필 친일파 집에 있는 게, 이 사람이 이 집에 왜 있었는지 내막 설명이 되면 좋기는 한데 어쨌건 간에 우연히 보니까 그러네요. 이것을 세우려는데 결국은 친일파 집을 표시해두는 식의 의미로서 반대 민원이랄까 아니면 최소한 항의라도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어쨌든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위원 2

○○○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 집을 샀나요?

○ 위원 3

저는 그것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라서요.

○ 위원장

종로6가와 율곡로가 같은 거예요? '종로6가 20-3'하고 '율곡로 232'가 같은 거냐고요.

○ 위원 5

위에는 지번주소이고 밑은 도로명주소입니다.

○ 위원장

거기가 ○○○ 집이라고요?

○ 위원 3

율곡로를 연결하는 곳인가 보네요. 이쪽 동대문에서 시작하는 그 지점 언저리인가요? 옛날 이대병원이 있는 쪽이요?

○ 위원 5

옛날 이대병원 건너편입니다.

○ 위원 3

하여튼 거기에서 시작해서 종묘로 가는 그 도로가 율곡로잖아요. 그래서 아마 율곡로로 잡힌 것 같습니다.

○ ○○○ 과장

그렇네요.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와 똑같은 위치네요.

○ 위원장

그러면 위치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 집 위치와 종로6가 20-3이라는 곳이 같은 곳인지. 옛날 번지수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 ○○○ 과장

예.

○ 위원 4

○○○의 처제라고 되어 있네요.

○ 위원 2

그러면 같은 집인데 조금 달라지죠. 그러면 약간 무시해도 되는데, 같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 위원장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네요. 자기 형부가 친일을 하는데 본인은 독립운동을 한다.

○ 위원 5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친일파 집안에 독립운동가 한 명이 있으면 그 집안이 다 걸린다든지 이런 주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생기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황애시덕에 대한 것으로. 거꾸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열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과장

예. ○○○ 집 위치 확인은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살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왜냐면 옆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 위원 3

이것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주소로 잡힌 것 아닙니까? 신문 조서 자체에 주소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내막을 모르면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 집에 있지?’ 그러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라고 하면...

○ 위원 5

지금 사실 뒤에 쪽 자료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 위원 1

세 들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 위원 5

하숙인 거죠.

○ 위원장

이의제기가 있을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합당하게 설명하면 돼요.

○ 위원 2

○○○ 위원님이 수고하셨으니까 지금 나온 것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 위원 5

예. 지금 다 적고 있습니다. 일단 넘기기 전에 제가 한 번 수정을 보겠습니다. 그것만 한 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고를 치렀다는 부분을 써서 넣는 게 나은지. 생략을 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신에도 보니까 3년형을 받기는 했거든요. 조금 감형되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 위원장

그래서 아까 ‘3년간’이라는 것을 굳이 넣을, 왜냐면 판결했을 때 3년이지 다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 ○○○ 과장

앞에는 ‘투옥된’ 이런 표현을 쓰고 뒤에는 ‘옥고를 치렀다.’ 이 정도의 문구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2

이신에도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집이잖아요. 집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을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다 해야 한다고요.

○ ○○○ 과장

그러면 이신에 거주지에 대해서도 투옥 기록을 확인해서 옥고를 치렀다는 문구를 똑같이 넣어주는,

○ 위원 5

안 넣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 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 위원 2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집이 다 사람과 관련이 있죠.

○ ○○○ 과장

그렇죠.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 위원 4

개인의 거주지에 표석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죠.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거주지를 다 찾아서 표석을 세우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취지면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다 찾아서 표석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2

요새 모바일로 검색하면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데요. 옥고를 몇 년간 치른 지 바로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 위원장

과장님이나 학예사가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가면서 나중에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가 이사도 가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세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 위원 5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신현구 집터가 활동거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신애 활동 거점, 황애시덕 활동 거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주지가 다른 거주지와 다른 이유는 소위 활동을 하다가 그 활동을 근거로 체포될 당시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 거주지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 ○○○ 과장

그러면 6번에 있는 것처럼 문구를 통일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 ○○○ 팀장

요새 버스정류장에 '활동터'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 위원장

활동터라고 하든지요.

○ ○○○ 과장

알겠습니다. 똑같은 문구로 바꿔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1운동 이전 학생대표 모임 장소인데요. 이것은 ○○○ 위원님께서 오른쪽처럼 표석의 제목 자체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준 내용입니다.

□ <3·1운동 이전 학생대표 모임 장소>

○ 위원 5

지난번에 이 논의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모임장소라고 하면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냐는 말씀들을 주셔서 조금 풀어서 쓴 셈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떤가 싶고 중간에 '이후'라고 하는 것은 지워도 될 것 같고 '을'이 두 번 들어가서 '을' 하나를 빼고 '독립운동 사전 조식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일부 수정하고 제목을 약간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 2

네. 그렇게 하고 '을'자 빼고, 제 의견은 참고하십시오. '독립운동 사전 조식을 만들어 이후 3·1운동의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위원장

그게 좋네요.

○ 위원 5

예.

○ ○○○ 과장  
예.

○ 위원장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과장  
예. 알겠습니다. 10번 한 번 봐주십시오.

□ <조선청년회연합회 회관 터>

○ 위원 5  
10번은 조금 긴데요. ‘사회의 혁신’ 이게 고유명사여서 살리기는 했는데  
요. ‘사회의 혁신, 산업의 진흥 등을 지향하고’ 이렇게 줄여버리는 게.

○ 위원 2  
그래요. ‘의’자가 너무 많아요. ‘의’자나 ‘적’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써요.

○ 위원 5  
‘사회의 혁신, 산업의 진흥’이라고 하면 그 범위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2  
그리고 그 위에 조선청년연합회의 본부 사무소 터라고 했는데 ‘사무소’를  
빼고 그냥 ‘본부 터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본부가 사무소죠.

○ 위원 5  
예. 당시 명칭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  
면 한 줄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위원 2  
그리고 다음에 ‘3·1운동 이후 전국 각지에서’라고 했는데 ‘전국’은 빼도

되지 않아요? ‘각지에서’ 또는 ‘전국에서’ 어떠세요? 그 두 개를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위원 5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일단 한 줄은 줄어드는데요.

○ 위원 2  
그다음에 ‘설립된 청년단’이라고 했는데 ‘청년 단체’ 아니에요? 정부가 ‘청  
년단’이라는 명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단체겠죠.

○ 위원 2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년 단체의 전국적 단일조직이었다.’

○ 위원 4  
‘전국적’도 빼도 될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였으니까.

○ 위원 2  
맞아요. ‘각지에서 설립된 청년 단체의 단일조직’ 이렇게 ‘전국적’을 빼도  
되고요.

○ 위원 4  
‘전국’도 빼버리는 겁니까?

○ 위원 2  
그러니까 ‘전국에서’를 빼든지 ‘각지에서’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5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연합회는 3·1운동 이후 설립된 청년 단체  
의 전국적 단일조직이었다.’

- **위원 2**  
그거 좋네요. 그렇게 하세요. 문장이 간단해지고 확 줄어드네요.
- **위원장**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 ○○○ **과장**  
예. 마지막 11번 보겠습니다. 조선여성동우회 회관 터입니다.
- **<조선여성동우회 회관 터>**
- **위원 5**  
이것은 뒤 문장의 '조선YWCA계열과 함께'를 그냥 빼고 '큰 역할을 하였 고 근우회 결성에 기여하였다.'로 줄여버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2**  
그래요. '협동전선단체'도 빼고요.
- **위원 5**  
예. '근우회 결성'은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2**  
당연하죠. 협동전선단체를 두 개를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고 아예 싹 빼 버려도 근우회인 줄 아니까요. 그리고 앞에 첫째 줄에 '여성운동단체인 조 선여성동우회 회관이 있던 곳이다.', '의'자를 빼버리죠.
- **위원 5**  
예.
- **위원 4**  
중간에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단체라고 하는 게 첫 문장에 나오고 두

- 번째 줄부터 '여성동우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로서 여성 사회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것을 빼는 게 더 클리어 할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나오지 않아요? 신사회 건설과 여성 해방운동을 지향한다는 데에서 다 포함이 되니까요. 두 번째 줄은 생략해 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위원 5**  
두 번째 문장에서 '여성동우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로서' 이렇게 그냥 가자는 건가요?
- **위원 4**  
그것을 빼자는 거예요. 그것을 빼고 '큰 역할을 하였고'까지. 두 번째 줄 과 세 번째 줄을 완전히 빼고 '1927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 1**  
'~지향한 여성동우회는 여성 사회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 을 하였고' 사회주의 설명은 앞에 있으니까요.
- **위원 5**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 **위원장**  
그것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 **위원 2**  
신사회건설과 여성해방운동을 지향한다고 할 때 '신사회 건설'과 '여성해 방운동'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신사회는 그 당시의 뉘앙스이지 지 금 일반적으로 쓰려면 '새로운 사회' 이렇게 써야지. 요즘 '신사회는' 잘 안 쓰더라고요.
- ○○○ **과장**  
똑같은 것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따옴표를 넣는 것은 맞는데...



○ 위원장

○○○ 위원님 의견을 바탕으로 쓴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1924년 5월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의 회관이 있던 곳이다. 신사회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을 지향한 여성동우회는 1927년 조선YWCA 계열과 함께 근우회 결성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언어들 많이 줄어드니까 간단하고 편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보시죠.

○ 위원 5

‘전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그러면 ‘여성운동의 협동전선단체’ 이 말 대신에 ‘전국’, 그런데 전국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가요?

○ 위원 5

왜냐면 서울지역 단체의 위상과 전국 단체들을 지휘하는 단체로서의 지위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2

우리는 ‘최고’, ‘최초’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 위원장

이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 ○○○ 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첨부 1번 자료는 뭘니까?

○ ○○○ 과장

이것은 표석 현황 전체를 정리한 건데 ○○○ 위원님이 그때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 표석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정리한 표입니다.

○ 위원 4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간담회 비슷하게 말을 나눴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서울시에서 만든 표석이 있고 자치구 단위에서 만든 표석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 ○○○ 팀장

저희가 앞으로 심의를 할 때 추가로 표석 세울 것을 발굴하거나 할 때도 시기와 분야를 봐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청 건이 있어서요. 강남구에는 시가 관리하는 표석이 하나도 없고, 압구정 터라고 구에서 세운 게 있습니다. 십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원래 표석을 세우는 기준은 기존에 표석이 있으면 시에서 안 세우는데 강남구에서는 그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시 차원으로 올려서 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다음에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과장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 중에 내년에는 자치구 차원에서 표석이 아니라 안 내판 수준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는 작업도 필요하겠다는 의견까지 진전됐습니다.

○ ○○○ 팀장

구 차원에서 전설이나 설화를 채집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없애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압구정 터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세워도 상관이 없는 표석들이니까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다시 교체를 하는 식으로 하고 기존에 구 차원에서 세운 표석들 중에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 시에서 하기 모호한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또 하나, 시간이 조금 나시면 강남구, 서초구 이런 쪽에서 표석 신청이 오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서울에 편입되는 게 1963년이예요. 그 전에는 광주군, 고양군 이런 쪽이니까 그쪽에 자료가 있는지, 그러니까 편입 이전에 서울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금 세워도 되거든요. 편입 이후 이 자리에 뭐가 있었다.

○ ○○○ 팀장

구별로 구에서 세운 자료가 있어서요. 그것을 정리해서 내년에 부의해서 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신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정비해 주는 사업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